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Oct 10, 2023

Weekly Market Report

본 리포트는 해운시장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Summary



Drybulker

케이프 파워



Tanker

VLCC, 나 홀로 약세



Container

SCFI, 900선 하회(9/28 기준)



Sale & Purchase

꺾이지 않는 신조선가

2023 KOBC Maritime Conference
한국해양진흥공사 마리티타임 컨퍼런스
1st November 2023 | Paradise Hotel Busan
2023. 11. 1(화) | 4:30pm ~ 5:30pm

사전등록 바로가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
자세한 내용은 6p를 참고해주세요

Macro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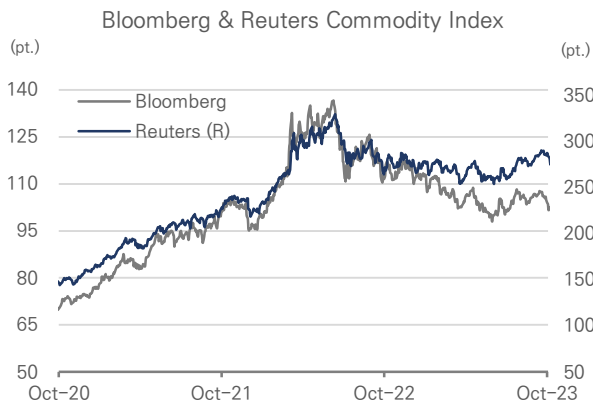
Foreign Exchange



Interest Rates



Commod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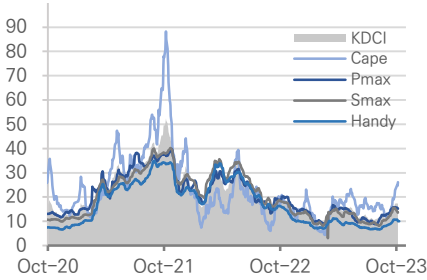


Stock Market



(US\$'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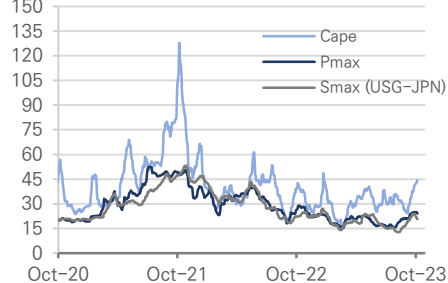
KOBC Drybulk Composite Index



		10/6	9/22	증감
KDCI		17,469	16,044	▲ 1,425
Cape	평균	26,153	18,808	▲ 7,345
	F/H	44,361	37,085	▲ 7,276
	T/A	29,445	16,716	▲ 12,729
	Pac RV	24,144	16,029	▲ 8,115
P'max	평균	15,185	15,571	▼ 386
	F/H	24,179	24,438	▼ 259
	T/A	15,003	14,125	▲ 878
	Pac RV	12,352	13,050	▼ 698
S'max	평균	13,535	15,562	▼ 2,027
	F/H	20,671	23,703	▼ 3,032
	T/A	14,662	18,413	▼ 3,751
	Pac RV	11,254	12,726	▼ 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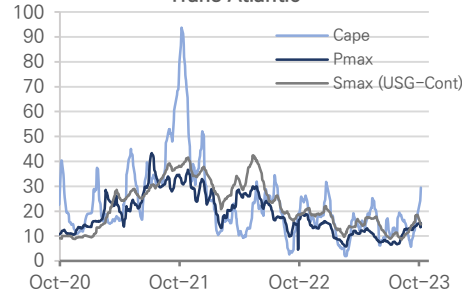
(US\$'000)

Front-Ha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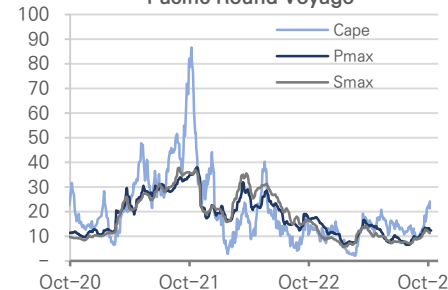
(US\$'000)

Trans Atlantic



(US\$'000)

Pacific Round Voyage



Cape

대서양에 배가 없다

- 중국 연휴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메이저 화주들의 수요 지속 및 대서양 선박공급 부족으로 상승
- 남반구의 기상 상태가 호전되는 4분기가 도래하며 호주와 브라질 모두 철광석 출하량 증가 중
- 중국의 호주산 원료탄 수요 증가에 따른 동호주 화물 유입 및 서아프리카 보크사이트 화주들의 선박 수요도 가세하며 케이프 시황 강세 구현
 - 항저우 아시아연계 기간 중 탄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달 구이저우 (중국)의 원료탄 탄광 붕괴사고 이후 중국내 원료탄 공급 차질이 심화되어 호주산 수입수요 증가
- 대서양 수역의 선박공급 부족도 이번 케이프 펄리의 주 요인
 - 중국 제철소들의 생산 마진이 울들며 계속 부진을 이어가자, 브라질산 고품위 철광석 수요 둔화
 - 이에 대서양보다는 태평양 항로의 수익성이 양호하게 형성되어 태평양 소재 선박들의 브라질항 ballasting이 감소, 현재 대서양의 공급 부족을 초래
- 그러나 케이프 시황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 수요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
 - 중국의 헝다 부동산 그룹은 9/25일 만기 도래한 원리금 40억 위안의 상환에 실패하여 현재 협상 중인 구조조정 계획에 불확실성 증대. 헝다그룹은 10/30일 예정된 청산 청원 청문회 결과에 따라 청산될 수도 있어 중국 부동산 부실이 초래한 철강수요 위축은 여전히 진행형
- 이번 주 중국 연휴 종료에 따른 활동성 증가와 대서양 선박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이 예상되나, 중국의 철강 수요 개선에 대한 실마리가 여전히 포착되지 않아 조만간 조정 돌입 전망

Panamax

시장도 연휴

-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중 성악활동 부진으로 전반적인 하락세 구현. 다만 주 후반 케이프와의 격차 확대에 따른 화물전환 수요 유입으로 태평양은 낙폭 축소
-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주중 지속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초까지 연휴가 이어져 지난주 석탄 물동량은 인도 수입자들이 주도
 - 인도 주요 발전소들의 석탄 재고량은 10월 3일 기준 2,320만 톤으로 9일분을 소폭 하회. 이는 고점 대비 약 3일분 가량 감소한 수준이라 인도의 수입산 석탄 수요 지속
 - Coal India가 운영하는 일부 탄광들이 폭우로 인해 석탄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 노조가 3일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 공급에 추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인도 수입자들은 수입산 석탄의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신규 물동량 유입은 둔화됨
- 이번 주 중국 연휴 종료에 따른 활동성 증가 및 중국의 동계 대비 석탄 재고구축 수요 유입 등에 힘입어 태평양 중심으로 저점을 확보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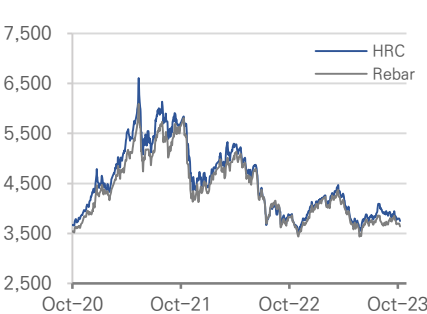
Supramax

미국 곡물 시즌

- 중국 연휴의 영향으로 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에는 낙폭을 축소하며 단기 저점확보 시도
- 미국산 곡물의 수확이 진행되며 USG와 PNW 양쪽 모두 수출 검역물량이 증가함
 - 10월 첫주 USG의 곡물 수출검역량은 5월 초 이후 처음으로 1백만톤을 돌파. PNW의 수출 검역량도 최근 2주 연속 30만톤을 상회하여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
 - 다만 USG의 주요 곡물 수출 통로인 미시시피강의 수위 저하로 인한 물류 차질 우려가 증대되자 PNW를 통한 우회수출 시도가 증가하여 동북아 항로 시황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중국 연휴 중 지연된 석탄 수입 및 철재 수출이 재개되며 이번주는 전반적인 회복세 구현 전망

(CNY/t)

Steel Price (China)



(US\$/t)

Iron ore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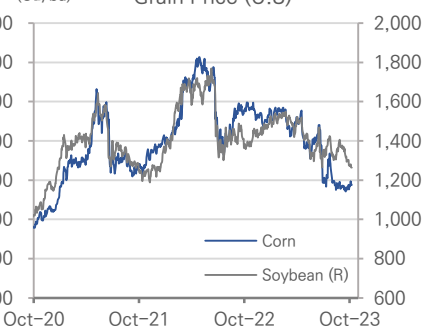
(US\$/t)

Steam Coal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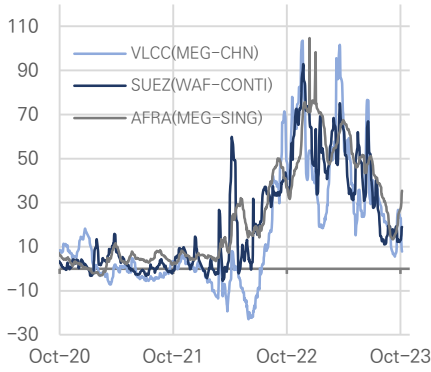
(US\$/bu)

Grain Price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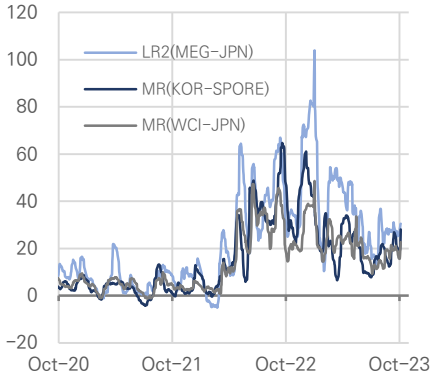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lobal Market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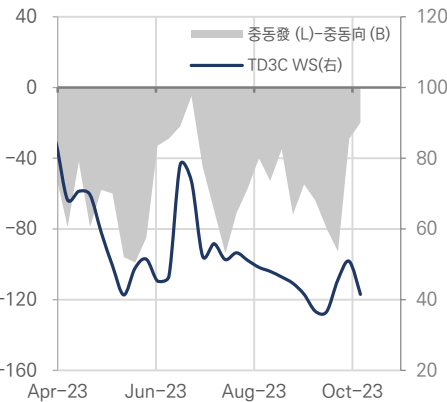
(US\$'000) Crude Tanker Spot 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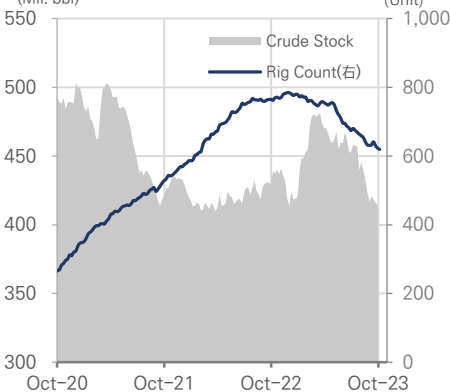
(US\$'000) Product Tanker Spot Earning



VLCC 중동 기준 Laden/Ballast Spread (ppt)



(Mil. bbl) US Crude Stocks & Rig Count



원유선

- VLCC: 중동 지역 화물 유입 둔화 계속되며 선박 공급 압력 심화. 중동/중국 구간 WS 주간 26.6% 하락. 주 후반 미국, 서아프리카 등 대서양 수역 활동성 회복은 시황 추가 하락 제한
- 중동 산유국 감소에 따른 물동량 위축은 연말까지 유지되며 시황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
- Suezmax: 나이지리아 선적 화물 유입 증가하며 서아프리카/유럽 구간 WS 10.4% 상승
- 미국 선적 화물 유입 동반 증가하며 대서양 수역 선박 공급 압력 해소. 하위 선형 강세에 따른 역대 선형 전환 수요 유입도 상방압력. 반면 상위 선형 약세는 시황 상승폭을 제한
- Aframax: 미국/유럽 구간 물동량 증가 등 대서양 수역 수요 증가에 수에즈 동부로의 공선 유입 제한. 역대 가용 선박 감소하며 중동/싱가포르 구간 WS 12.9% 상승 마감
- 제품선도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며 화물 전환 수요 유입도 제한될 것. 시황 강보합세 예상

제품선

- LR: 중동 내 가용 선박 감소와 Aframax 강세 유지에 중동/동북아 구간 WS 5.8% 상승
- 동북아 MR 시황 상승 전환되며 선형 전환 수요 유입도 감소할 것. 강보합세 유지 전망
- MR: 동북아 지역 연휴 종료 후 화물 유입 증가하며 한국/싱가포르 구간 운임 21.5% 상승
- 역대 선박 공급 감소에 강세 유지 예상. 동남아발 공선 유입 가능성은 상승폭 제한 요인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	Aframax (MEG-SGP)	LR2 (MEG-JPN)	MR (KOR-SGP)*
WS	36.46 ▼ 13.21	74.55 ▲ 7.05	155.22 ▲ 17.72	140.83 ▲ 7.77	25.44 ▲ 4.50
TCE (US\$/day)	7,805 ▼ 15,429	18,991 ▲ 6,228	35,366 ▲ 8,911	30,511 ▲ 4,812	28,134 ▲ 8,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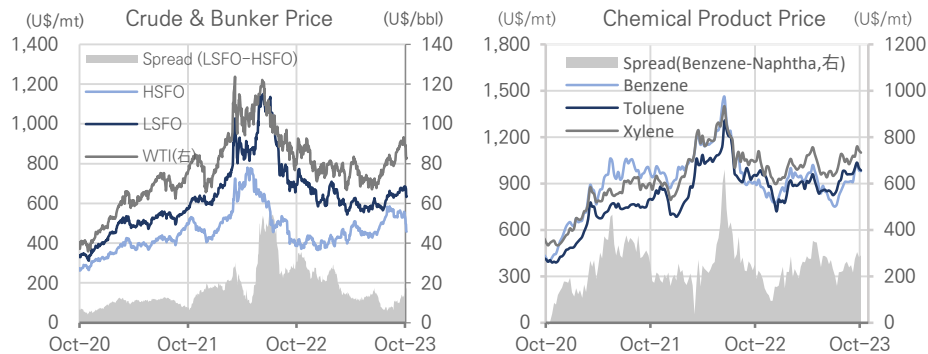
※ MR(KOR-SGP) 운임 : US\$/mt

국제유가

- 통화 긴축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위험자산 회피심리 확대. 주간 WTI 8.8% 하락
- 미국 국채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 구현. 달러화 지수는 9월 중순 이후 105를 계속 상회
- 미국 원유 상업 재고는 주간 222만 배럴 감소하며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
- 정제시설 유지보수에 가동률은 주간 2.2% 하락한 87.3%를 기록했으나, 원유 순수입이 196만 b/d 감소하며 재고 감소 야기. 수출은 주간 94만 b/d 증가하며 유조선 시황 지지
- 휘발유 재고는 정제처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 둔화로 인해 주간 648만 배럴 증가
- 러시아는 경유 수출 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 다만 정유사는 생산량의 50% 이상 국내 공급 의무를 가지며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는 유지. 대서양 수역 경유 공급 차질 완화될 것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발생하며 이번주 유가 상승 전환
- 이란 배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중동 지정학적 위기 고조, 유가 상방압력으로 작용 예상

연료유가

- 싱가포르 HSFO, LSFO 가격은 각각 주간 16%, 7% 하락. 발전용 수요 급감하며 HSFO 하락폭 확대. 유종 간 Spread는 주간 28.8% 확대된 \$176.5/톤 기록 ('23.3Q 평균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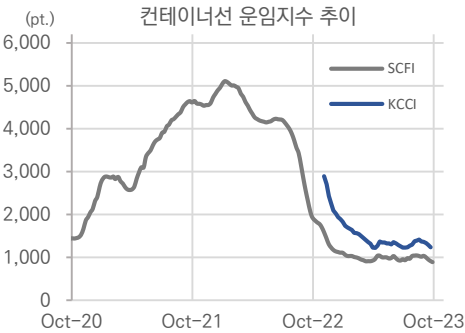


	WTI	HSFO	LSFO	Spread
가격*	82.79	458.00	634.50	176.50
증 감	▼ 8.00	▼ 87.50	▼ 48.00	▲ 39.50

※ Bunker Price : Singapore 기준

	Benzene	Toluene	Xylene
가격	980 ▼ 5	985 ▼ 15	1,100 ▼ 15
Spread*	291 ▲ 9	296 ▼ 1	411 ▼ 1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10/6 미발표)	'23.9.28.	'23.9.15.	증감
SCFI	886.85	911.71	▼ 24.87
美서안	1,729	1,790	▼ 61
美동안	2,249	2,377	▼ 127
유럽	599	623	▼ 24
지중해	1,166	1,217	▼ 50
동남아	176	174	▲ 1
중동	790	815	▼ 25
호주	600	610	▼ 10
남미	1,756	1,793	▼ 37
日서안	306	308	▼ 2
日동안	321	322	▼ 1
한국	147	147	-
동서Africa	2,183	2,220	▼ 37
남Africa	1,305	1,312	▼ 8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선형 (TEU)	건조* 기간	\$/Day	+/-**	성약주차
700	A 3개월	8,300	▲ 200	9월2주
1,100	A 10개월	11,900	▲ 650	9월3주
1,600	A 5개월	12,250	▲ 1,750	9월4주
2,200	C 5개월	16,000	▲ 2,100	9월3주
2,700	A 6개월	17,250	▲ 1,250	9월3주
5,000	A 13개월	18,000	▼ 3,200	9월3주
5,500	A 13개월	37,000	▲ 1,800	7월2주
7,000	A 60개월	37,000	▲ 4,500	7월1주
9,000	A 24개월	32,000	▼ 15,000	6월3주

* A: '05년 이후 / B: '01~'05년 / C: '01년 이전
** 직전 성약 대비

종 합 SCFI 887pt(9/28)로 연저점 경신, 금주 KCCI 5.3% 하락하며 약세 지속

- 수급 불균형 심화되며 '20.5월 이후 처음으로 900선 하회. FBX는 연중 최대 성수기인 9월 운임 약세인 점을 고려하여, 컨 물동량은 연말까지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국경절에 따른 중국발 물량 저하로 인해 타 동아시아 국가로 배정되는 선복량 증가. 수급 불균형 지속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10월부터 전 항로에 걸쳐 공급 조절 확대 예상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EU-ETS(EU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추후 관련 비용 부담 증가 전망. 최근 Maersk, Hapag Lloyd, CMA CGM이 '24.1분기부터 탄소배출할증료 부과를 발표

미주항로 SCFI 4주 연속 하락, KCCI(10/10) 동안 9.9%, 서안 4% 하락

- 북미항로는 공급확대, 수요 부진 그리고 소비패턴 변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 지속. 국경절 이후 공급 조절이 확대되며 운임은 약보합 예상. Xeneta는 북미항로의 임시 결항이 내년 설 연휴인 2월까지 이어지며 운임 침체가 최소 5개월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팬데믹 동안 성장세를 보여온 동부항만 물동량 약세 계속. 8월 휴스턴항은 30.7만TEU를 처리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6% 하락했으며 뉴욕 또한 66.2만TEU로 21.4% 하락

유럽항로 SCFI 9주 연속 하락 600선 하회, 금주 KCCI 6.9% 하락

- 국경절 전 최대 성수기에도 부진이 지속되며 SCFI 600선 하회, 유럽항로 운임이 \$500대를 기록한 것은 '19. 10월 이후 처음이며 4분기 내내 선사들의 공격적인 공급 조절 지속 예상
- 일부 선사는 최근 운임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비용 보전을 위해 11월 GRI를 계획 중에 있으나 성공여부는 미지수
- CMA CGM은 '24년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탄소배출할증료의 예상값으로 TEU 기준 북유럽 항로 약 25유로, 지중해 항로 40유로 수준으로 발표, 해당 비용 부과는 선화주사 간의 장기 계약 협상에서 주요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연근해/기타 동남아 항로, 공급 축소 및 물동량 개선이 병행되며 운임 보합

- 8월 기준 한국-동남아 8국간 컨 물동량은 32.8만TEU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 싱가포르항의 8월 처리량도 33만TEU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는 등 운임 보합세

KCCI (KOBEC Container Composite Index)

Group	Code	Route		Weight	'23.10.10	'23.9.25.	증감
종합지수	KCCI				1,170	1,236	▼ 66
Mainlane 원양항로	KUWI	USWC	북미서안	15.0%	1,768	1,842	▼ 74
	KUEI	USEC	북미동안	10.0%	2,350	2,609	▼ 259
	KNEI	Europe	북유럽	10.0%	1,101	1,183	▼ 82
	KMDI	Mediterranean	지중해	5.0%	1,756	1,880	▼ 124
Non- Mainlane 중장거리항로	KMEI	Middle East	중동	5.0%	1,477	1,514	▼ 37
	KAUI	Australia	오세아니아	5.0%	1,090	1,022	▲ 68
	KLEI	Latin America East Coast	중남미동안	5.0%	2,062	2,164	▼ 102
	KLWI	Latin America West Coast	중남미서안	5.0%	1,881	2,020	▼ 139
	KSAI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2.5%	1,533	1,558	▼ 25
	KWAI	West Africa	서아프리카	2.5%	2,172	2,285	▼ 113
Intra Asia 연근해항로	KCI	China	중국	15.0%	39	35	▲ 4
	KJI	Japan	일본	10.0%	206	220	▼ 14
	KSEI	South East Asia	동남아	10.0%	273	279	▼ 6

* 부산항 선적, 해상 수출 SPOT 운임, USD, 전 항로 40FT Dry Container 기준

「파나마 운하, 11월부터 일일 통행량 제한 강화」 (Splash247_23.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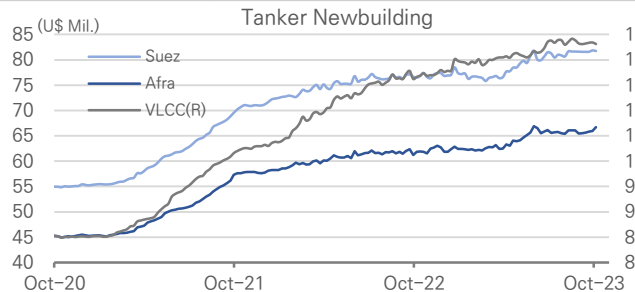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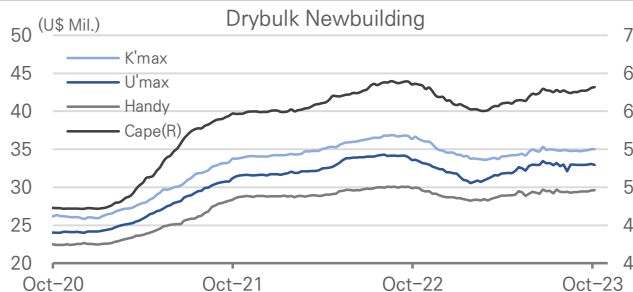
- 파나마 운하 당국은 엘니뇨로 인해 올해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11월 초부터 운하 일일 통행량을 추가 제한하기로 결정. 현재 운하의 최대 흘수는 2m 가까이 낮춰졌고, 일일 통행량은 40회에서 32회로 축소된 상황. 11/1일부터는 일일 통행량을 31회로 추가 감축하고 네오파나막스 9회, 파나막스 22회로 배정할 예정. 한편, 엘니뇨로 인해 가뭄이 계속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흘수 및 통행량 제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MSC, 총 선대 규모 확대되며 유류 선박도 증가하는 추세」 (로이드리스트_23.10.3)

- MSC는 올해 55.7만TEU의 대규모 신조 선대를 추가하며 경쟁사 대비 선대를 빠르게 확장 중. 당사는 매월 평균 8.3만TEU의 선복량을 추가하고 있으며, 전체 선대 규모는 1월 초 461만TEU에서 현재 536만TEU까지 확대. 그러나 이와 동시에 수리, 개조 또는 운항을 중단하는 선박수도 증가, 9월말 기준 5일 이상 유류 상태인 선박은 총 33척으로 약 20.2만TEU 수준을 기록

Newbuilding & Re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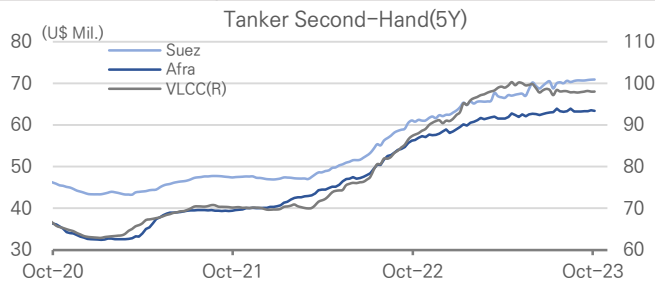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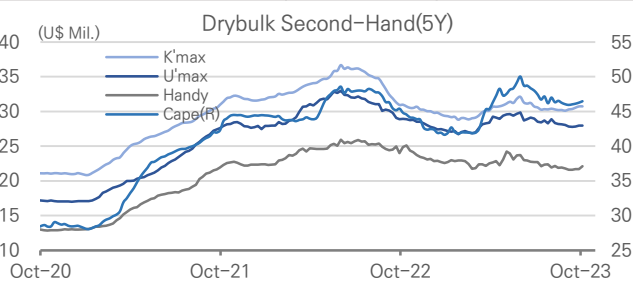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3평균	'22평균	금주	+/-	'23평균	'22평균
Drybulk	Cape	180K	63.19	▲ 0.10	61.69	62.15	60.75	▲ 0.39	58.99	59.32
	Kamsarmax	82K	35.00	-	34.42	35.57	36.32	-	36.73	39.47
	Ultramax	64K	32.92	▼ 0.13	32.24	33.05	34.65	▼ 0.12	35.49	37.23
	Handy	33K	29.62	▲ 0.07	29.04	29.36	30.43	▲ 0.28	29.43	29.86
Tanker	VLCC	310K	123.14	▼ 0.32	121.60	113.45	125.36	▼ 0.17	124.67	106.21
	Suezmax	160K	81.75	▼ 0.13	79.28	75.73	88.58	▲ 0.21	85.68	74.28
	Aframax	105K	66.74	▲ 0.79	64.45	61.08	75.56	▲ 0.27	74.24	63.10



Type	Size	Buyer	Builder	Price	No.	Delivery	Remarks
Bulker	64,000 DWT	Pan Ocean	Oshima SB	-	2	'26	-
Container	1,250 TEU	Elbdeich Reederei	Huangpu Wenchong SY	-	2+2	'26	Methanol Capable
Chemical	20,500 DWT	Athenian Sea Carriers	Wuchang SB Group	-	4	'25-'26	LNG and Methanol Re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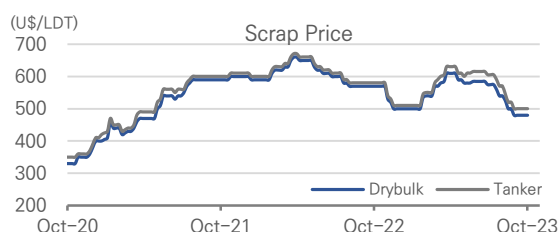
Secondhand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3평균	'22평균	금주	+/-	'23평균	'22평균
Drybulk	Cape	180K	46.47	▲ 0.20	45.80	45.27	29.01	▲ 0.11	29.62	31.82
	Kamsarmax	82K	30.73	-	30.29	33.09	21.62	▲ 0.15	21.64	23.98
	Ultramax	64K	27.97	-	28.28	30.00	18.58	▼ 0.40	19.58	21.17
	Handy	33K	22.09	▲ 0.37	22.55	24.31	14.70	▲ 0.10	15.24	16.85
Tanker	VLCC	310K	98.05	▲ 0.02	98.08	79.61	73.02	▲ 0.04	72.83	55.15
	Suezmax	160K	70.93	▲ 0.04	68.18	54.39	58.02	▲ 0.14	54.41	38.40
	Aframax	105K	63.40	▼ 0.13	62.28	49.87	51.13	▲ 0.14	50.21	34.62



Type	Vessel	Size	Built	Builder	Price	Buyer
Bulker	Vinayak	58,089 DWT	2009	Tsuneishi Zhoushan	\$15m	Undisclosed
Bulker	Cape Star	175,366 DWT	2010	Jiangsu Rongsheng	\$21.5m	Chinese buyers
Tanker	Evinos	49,997 DWT	2013	STX SB (jinhae)	\$33.7m	Greek buyers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3평균	'22평균	금주	+/-	'23평균	'22평균
Bulker	540	-	533	585	480	-	550	588
Tanker	560	-	549	595	500	-	572	598



2023 KOBC Maritime Conference

한국해양진흥공사 마리타임 컨퍼런스

사전등록 바로가기

1st November 2023

2023. 11. 1.(수)

Paradise Hotel Busan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프로그램

시간	내 용		
10:30 ~ 11:00	등 록 · 티타임		
11:00 ~ 11:05	개회사		
11:05 ~ 11:20	축 사		
11:20 ~ 11:40	기조연설	손병두 이사장 한국거래소	
11:40 ~ 13:00	오찬 및 네트워킹		
13:00 ~ 13:30	금융세션	글로벌 선박금융 시장 동향	Mr. Abhishek Pandey SC Bank
13:30 ~ 14:00		글로벌 항만물류금융 시장 동향	김덕원 대표이사 한국초저운
14:00 ~ 14:30	패널토론		
14:30 ~ 14:45	휴식 및 네트워킹		
14:45 ~ 15:45	시황세션 I	건화물선 시장 동향 및 전망	Ms. Louisa Follis Clarksons
		유조선 시장 동향 및 전망	Mr. Oliver Ge McQuilling
15:45 ~ 16:00	휴식 및 네트워킹		
16:00 ~ 17:00	시황세션 II	컨테이너선 시장 동향 및 전망	Mr. Jan Tiedemann Alphaliner
		선박매매 시장 동향 및 전망	Mr. Tom Evans VesselsValue (A Veson Company)
17:00 ~ 18:00	질의응답 및 폐회		

용 어	해 설
공선	선박이 화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
내로우빔 (Narrow Beam)	좁은 선폭의 선박
새시 (Chassi)	컨테이너를 탑재하여 일체화되는 트레일러의 대차
와이드빔 (Wide Beam)	넓은 선폭의 선박
용선료	선박을 빌리고(용선) 이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선주에게 지불되는 금액
용선주	선박을 용선하는(대여받는) 자
정시성	정기선의 운항일정 준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공표 일정 대비 실제 운항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
Aframax	재화중량톤(DWT) 8~12만톤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ARA (Amsterdam-Rotterdam-Antwerp)	유럽의 주요 수출입 항구,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앤트워프의 약자
Ballast	공선 상태에서 선박의 안정성 및 감항성 유지를 위해 해수를 선박에 싣는 행위
Cape	재화중량톤(DWT) 10만톤 이상의 대형 건화물선으로 철광석과 석탄을 주로 운송
CBM (Cubic Meter)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 단위
DWT (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
F/H (Front Haul)	다수의 화물수송이 이루어지는 선종별 주 수송구간(건화물선 대서양→태평양)
FE	‘철’을 의미하는 ferro의 약어. 보통 철광석의 철분 함량을 표시 (FE 62%)
Feeder	대형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서비스 또는 선박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40피트(feet)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1FEU=2TEU
FFA (Forward Freight Agreement)	운임선도거래. 미래 특정 기간의 운임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하여 계약하는 거래
Handy	재화중량톤(DWT) 4만톤 미만의 소형 건화물선
HRC (Hot Rolled Coil)	열연강판. 철 슬라브를 압연하여 생산한 1차 제품으로 냉연강판, 강관 등의 소재로 쓰임
HRCI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호이-로빈슨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HSFO (High Sulfur Fuel Oil)	유황성분의 함량이 0.5% 초과 / 3.5% 이하인 고유황 연료유
Indon	인도네시아
Kamsarmax	재화중량톤(DWT) 8~9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LA/LB (Los Angeles/Long Beach)	미국 서부 대표 항만인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을 의미
LDT (Light Displacement Tonnage)	경화배수톤. 화물을 제외한 선박자체의 중량으로 선박 해체 매각 시 지급하는 선가의 기준
LR2 (Long Range2)	재화중량톤(DWT) 8~12만톤급 유조선으로 주로 석유제품을 운송
LSFO (Low Sulfur Fuel Oil)	유황성분의 함량이 0.5%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
MR (Medium Range)	재화중량톤(DWT) 4~6만톤 규모의 유조선으로 석유제품을 운송
Pac RV (Pacific Round Voyage)	태평양 역내를 왕복 운항하는 순환 항로
Panamax	재화중량톤(DWT) 7~8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 기업의 구매담당자 대상 설문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경기 판단 지표로 사용
Rebar (Reinforcing bar)	철근
SB (ShipBuilding)	조선(소)
SCFI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Suezmax	재화중량톤(DWT) 12~20만톤급 원유 운반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유조선
T/A (Trans Atlantic)	대서양 역내를 운항하는 항로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20피트(feet)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Ultramax	재화중량톤(DWT) 6~7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VLCC (Very Large Crude-Oil Carrier)	재화중량톤(DWT) 20만톤 이상 초대형 원유운반선
WS (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	주요 항로별 기준 운임율(Flat Rate)을 상대지수로 나타낸 지표
WTI (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 텍사스산 원유. 영국 북해의 브렌트유, 중동의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

KOBC Drybulk Panelists

	Jangsoo Shipping		Flaship		Ascent Bulk		Daesang Shipping
	Basim Chartering		Max-Bridge		Greatwall International		Ace Chartering
	Kaya Shipping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Good Turn Transportation		Ocean Robin Shipping		Howe Robinson Singapore		OHY Shipping
	BNS Shipping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Seoul Line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Euroline Global
	Taewoong Logistics		Samsung SDS		Hyundai Glovis		Ramses
	CJ Logistics		LX Pantos		Posco Flow		Onnuri Logistics
	Joosung		Sejung Shipping		Lotte Global Logistics		PNS Networks
	NTI Logistics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Forocean Shipbroking		Seasure Shipbroking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Kims Maritime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SSY Korea
	Haidely Shipping		STL Shipping		HIT Marine Company		Reshamwala Shipbrokers